

지방의 선택! 희망2007

지방신문협회 대선 3차 공동 여론조사

정동영, 광주·전남 선두 탈환

40.4% 지지...전국선 이명박 독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선 예비후보 전국 지지도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30%포인트 이상 앞서며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대한국민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정동영 후보는 경선효과(Convention Effect)와 손학규, 이해찬 등 당내 경선 후보 지지자들을 흡수한 데 힘입어 상승세를 탔고, 광주·전남에서도 처음으로 이 후보를 누르고 우위를 확보했다. 단일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이는 광주일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8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와 함께 대한국민신당 후보 확정 직후인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17일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대선 공동 여론조사' 결과다.

국회에 원내 의석을 가진 5개 정당

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묻은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55.0%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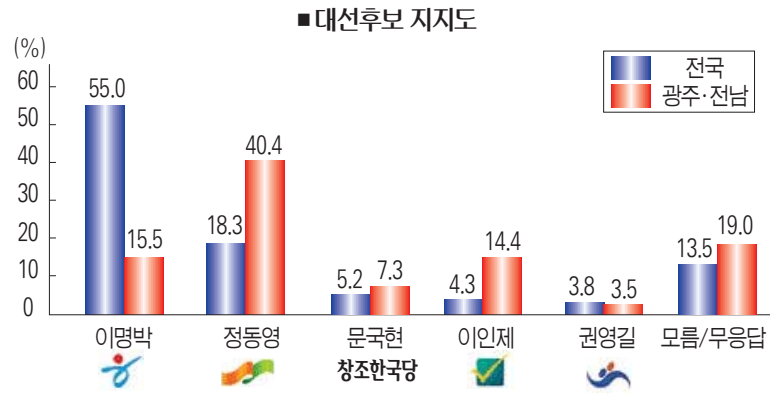
정동영 후보는 18.3%를 얻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는 5.2%로 3위를 차지했고, 이인제 민주당 후보 4.3%,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3.8% 순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층은 13.5%였다.

특히 정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40.4%의 지지를 얻어 15.5%에 그친 이명박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67.8%를 얻어 지지율을 훨씬 웃돌았으며, 정동영 후보는 8.8%, 나머지 후보들은 1.0% 이하를 기록했다.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등 다른 정당 후보들과 가장대결에서도 2~5배가량 높은 지지율을 얻어 독주 현상이 뚜렷했다.



▶해설 4·5면 ▶조사 보고서 인터넷광주일보(www.kwangju.co.kr)

이 후보는 범여권 단일 후보와 가장 대결에서 정동영 후보와 55.2% 대 24.2%, 이인제 후보와는 61.6% 대 11.8%, 문국현 후보와는 61.8% 대 11.9%로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2천940명)를 대상으로 변경 의향을 묻은 결과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2.5%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3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명화' '경제' 문제와 관련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경제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이 83.3%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10.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53.0%로 수위를 차지했고, 대한국민신당 15.0%, 민주노동당 4.7%, 민주당 4.5%, 창조한국당 1.5%, 국민중심당 0.5% 순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38.2%, 부정적 응답은 56.1%였다. 이번 조사의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포인트(광주와 전남은 ±6.9%포인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관광협회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상의, 광주경제인연합회 등 광주지역 24개 단체 1천여명이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 이전 반대 시민결기대회'를 갖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

광주공항 국제선 없앤다

내달 9일부터 무안으로 이전...내년말 국내선 폐지도 검토

광주 商議·시민단체 반발

광주공항에서 운항중인 국제선 항공편이 오는 11월 9일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광주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上海)나 선양(瀋陽) 등을 오가는 승객들은 다음달 9일부터는 무안공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상반기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완공돼 개통되면 광주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선도 모두 무안공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및 광주공항 폐쇄 반대를 주장해 온 광주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후 광주공항의 국제선과 목포~김포 노선을 무안공항에서 운항기로 하고 건교부 관계자는 "무안공항이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맡고, 목포공항을

대체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항공정책에 따라 무안공항 개항 다음 날인 11월 9일부터 곧바로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에서 운항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개항식 사전점검차 현지로 들른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도 18일 "건교부로부터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현재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이 이착륙하는 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건교부 방침대로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무안공항 개항대비 지원협의회'에 참석한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공항의 국내선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2008년 하반기 이후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광주공항에서는 광주~상하이(대한항공 주 2회·중국 동방항공 매일 1회), 광주~선양(중국 남방항공 주 1회)간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

으며 오는 30일 아시아나항공이 광주~베이징(北京) 노선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무안공항은 개항 이후 상하이(주 23회), 베이징(주 1회), 선양(주 2회), 타이완(주 14회), 창사(주 2회) 등 중국 5개 노선 42편을 운항하며, 일본 후쿠오카 노선 2편의 운항을 검토하는 등 주 44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또 김포(4편)와 제주(4편) 등 1일 8편의 국내선도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관광협회를 비롯한 지역 여행업계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제인총연합회 등 각계 단체 회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반대 시민결기대회'를 가졌다.

/박지랑기자 unipark@kwangju.co.kr

'로스쿨 정원' 반발 확산

법대학장協 "강행맨 인가신청 거부"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정한 데 대한 전국 대학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은 18일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 로스쿨 인가 신청 정면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일부 대학 총장들도 이에 동참해 공동 투쟁을 벌

이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수정 계획이 없으며, 청와대도 교육부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기사 8면)

전국 주요 대학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

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조선대, 건국대, 서울대, 중앙대, 단국대, 명지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숭실대, 숙명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14개 법과대학 학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들도 이날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해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 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교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문의: (062)220-0541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stn.ac.kr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928-0200]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겁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